

광주에 '이동노동자 쉼터' 생긴다

광주에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문을 연다. 광주시가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은 물론 노동·건강·금융 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2월 초 상무지구에 개소한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 수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며, 광주가 두 번째다.

광주시는 쉼터 운영에 앞서 지난해 실태조사와 현장체험, 토론회 등

광주시, 내달 초 상무지구에 개소 대리운전기사 등 휴식공간 활용 상시 인력 배치·건강-금융상담

을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대리운전기사는 4000명 안팎으로 평균 연령은 51세, 전업 종사자는 81%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은 대기 중에는 추위와 더위는 물론 생리적 현상조차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쉼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쉼터는 대리운전기사가 밀집한 상무지구 차스타워 8층에 132㎡ 규모로 조성된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다.

쉼터에는 휴대전화 충전기, 이동노동자의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안마의자, 발바사지기, 교육·회의실, 휴식공간 상담실, 탕비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상시인력 2명을 1일 2교대로 배치해 쉼터 이용자를 지

원하고, 주간시간에는 노동·법률상담과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협조해 건강, 금융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쉼터가 단순 휴게 공간을 넘어 대리운전기사 스스로가 힘을 모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커뮤니티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신 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이동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특수 고용형태근로자로 분류돼 각종 노동법적 보호에서 배제돼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눈치우는 광주시장 윤정현 광주시장(왼쪽에서 두번째)이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10일 새벽 동구 학운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 비상근무 발령으로 제설작업에 투입된 공무원들과 인도에 쌓인 눈을 쓸고 있다.

광주·전남에 이틀째 내린 눈 '습설'

"북쪽 기압골 비해 한반도 공기 상대적 포근 완전히 얼지 않아"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광주·전남에 이틀째 내리고 있는 눈은 습설(濕雪·기상관측 용어)인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기상청은 10일 "전날부터 북쪽을 지나가는 찬 기압골과 해기차(대기·해수 온도차)의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 13도 이상의 해기차가 되면, 해수면 위의 열·수증기가 연직으로 활발히 공급돼 대기

불안정이 일어나 눈구름이 발달한다"고 설명했다.

광주기상청은 또 "이번 눈은 북쪽의 찬 기압골에 비해 한반도에 남아 있는 공기가 상대적으로 포근해 완전히 얼지 않고 습기를 머금은 채 내렸다. 습설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눈은 같은 부피에서 수증기량과 수분 함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습설과 건설(乾雪·마른 눈)로 분류

된다. 습설은 눈 속에 함유된 수분이 10%를 넘는 경우로, 주로 함박눈과 날린눈의 형태를 보인다.

기상청은 상대적으로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습설이 쌓일 경우 시설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습설은 마른 눈보다 무게가 2~3배 더 나간다. 1㎡ 넓이에 눈이 1m 가량 쌓일 경우, 건설과 일반 눈 무게는 150kg 정도지만 습설은 평균 300kg의 무게를 지닌다.

폭 10m, 길이 20m의 비닐하우스에 50cm의 습설이 쌓일 경우 최대 30t이 넘는 하중이 걸리게 된다.

최남규 기자

180억 투입 '전통시장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이 지난해 여수 수산시장 화재를 교훈 삼아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10일 중기부광주전남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올해 '화재격정 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상반기까지 화재 취약 시장을 대상으로 시설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에 화재 안전등급 취약시장으로 분리된 전국 전통시장 점포 3만2000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점 지원 분야는 발파 요인을 골든타임 5분 이내에 감지해 알려주는 '화재알림시스템'과 '자동화재 속보장치' 설치에 180억원을 투입한다. 점포당 지원 금액은 최대 80만원이다.

이번 지원은 자율소방대 운영, 화재보험·공제 가입, 소화·화재예방 장비 설치 등 자율적 화재예방 노력 우수시장을 최우선적으로 한다.

또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시에는 화재안전 취약시설의 개·보수를 의무화하고, 주요 화재 원인인 노후 전기 설비 교체·장비도 추진한다.

화재예방 캠페인도 강화된다. 이날 중기부 광주전남청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공동으로 광주 무등시장을 시작으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상시점검에 돌입했다.

중기부장관이 '전통시장 안전지킴이'로 임명한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은 "매주 1~2회 전통시장 상시 화재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은홍 기자

동구, 남광주밤기차야시장 참여상인 추가모집

광주 동구는 2018년 남광주밤기차야시장에 참여할 상인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광주 최초 먹거리특화야시장으로 첫 선을 보인 남광주밤기차야시장은 이듬해 30팀, 푸드트럭 10팀 등 40개 팀이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이며 새로운 야간관광명소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구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퓨전음식 등 직접 조리한 음식을 판매할 이듬해 10팀 이상, 푸드트럭 3대 내외를 모집한다. 계약기간은 올해 말까지며 야시장 운영위원회 평가 후 연장이 가능하다.

참가자격은 음식관련 창업이력을 보유하고 창업의지를 가진 자로, 이듬해에는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광주에 주민등록이 있는 내국인 및 거주신고된 외국인, 푸드트럭은 영업허가가 가능한 조건을 갖춘 자이다.

서구 구립도서관, 겨울방학 맞이 특별 프로그램

광주 서구 상록도서관과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상록도서관에서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초등학생 3~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로 떠나는 미래 여행'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초등 2~5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새들이 맘껏 날아라'라는 주제로 철새와 텃새, 조류 독감 등에 대해 알아보고 동물과 자연친화에 대해 알아보는 수업을 진행한다.

남구 착한가게·가정 305곳 돌파

광주 남구 관내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정기 기부를 통해 매월 3만원 이상씩 후원하는 착한가게와 착한가정이 300곳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남구 관내 2017년 연말 기준 착한가정 및 착한가게 현황에 따르면 훈훈한 마음을 가진 이웃들의 기부문화가 남구 관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후원에 나서고 있는 착한 가게만 남구 관내에 268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한해 착한 가게를 통해 모인 후원 금액은 7,818만9,000원이었다. 착한 가게가 가장 많은 동네는 월산동(27곳)이었으며, 뒤를 이어 효덕동(24곳), 주월2동(22곳), 월산동(19곳), 백운동·양림동·월산동(18곳) 순이었다.

북구, 겨울철 에너지 절약 대책 총력

광주 북구가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너지 절약대책에 나선다.

10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2월초까지 겨울철 이상기온 등 불안정한 기후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 청사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 대해 '겨울철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북구는 우선 공공청사의 난방기 과다사용 제한을 위해 실내 적정온도 18°C이하 유지, 장애인·임산부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전광판 및 조명사용 제한, 옥외 광고물 소등(오후 11시~익일 일출시)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 광주·전남 최초 부구청장 자체 임명

광주 광산구는 "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성수 자치행정국장(4급)을 광산구 부구청장(3급)으로 승진시켰다"고 9일 밝혔다.

광산구의 이번 승진인사에 어려움으로 관심이 쏠린다. 첫째, 광주와 전남에서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단체장을 임용한 최초 사례다. 이번 광산구 자체승진은 '관제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치행정'으로 가는 길을 개척했다는 평가다.

둘째, 자치구 공직사회의 '내부 자치'를 구현했다. 광산구는 업무 파트너로서 부구청장을 공직조직이 직접 선출하는 원칙을 세우고 6급 이상 공직자들의 의견을 내부 전신방을 통해 파악했다.

임행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해남·나주·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동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석면 해체공사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석면조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기업컨설팅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